

서울시,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나선다

〈조류인플루엔자〉

올해 4월 AI 발생 후 현재까지 0건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체계 운영 동물원 전시조류 AI 검사주기 단축

서울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을 강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AI·구제역 차단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4월 6일 전남 장흥의 한 농가에서 나온 이후 현재까지 발생 건수가 0건이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31일 충북 충주시 소농가에서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시는 “AI의 경우 매년 동절기 기간 중에 도래하는 철새에 의해 유입될 가



AI 의심사례로 확인된 오리농장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뉴스시스

능성이 상존해 있고, 구제역은 최근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체계 운영 ▲축산시설과 야생조류 임상예

찰·정밀검사강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시 긴급조치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를 추진한다.

우선 시는 농장주,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축산 관계자가 의심 증상을 발견해 자

치구에 신고하면 서울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를 알리는 신고 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월 2회 철새도래지를 예찰하고 동물원 전시조류 AI 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한다.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해 의심 증상, 폐사율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을 지시한다. 보건소 방역 차량을 활용해 야생조류 서식지에서 방역 소독을 벌인다.

H5·H7형 항원이 검출되면 신속한 초동 방역에 나선다. 항원검출 즉시 해당 지역의 출입을 차단하고 현수막과 안내표시판을 설치한다.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에 야생 조소류 예찰 지역을 설정(이동 제한)하고 소독과 예찰에 만전을 기한다. 21일간의 이동 제한 기간이 끝나면 예찰 지역 내 가금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하고, 야생조류 고병원

성 AI가 검출되면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사육농가, 동물원을 포함 9개소, 542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4주 후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AI와 구제역 상황을 전파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AI·구제역 차단방역을 총괄한다. 시 감염병관리과는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와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맡아 동물 방역 조치(살처분, 폐사체 수거)에 수반되는 인체 감염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시 자연생태과는 철새도래지와 야생조류 서식지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시 공원녹지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리 공원 내 불법 사육을 감시하고 관람객과 동물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이오 의료 국내외 기술교류의 장 마련

서울 바이오·의료 국제 컨퍼런스 개최 스타트업 11곳 참여 투자 설명회 준비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바이오 의료분야 국내외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7~8일 '제5회 서울 바이오·의료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세계 최초 디지털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페어 테라퓨틱스의 CEO 코리 맥켄이 기조 연사로 나선다.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아도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는 3세대 치료제다. 모바일 앱이나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인별 자가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코리 맥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바이오·의료 산업 혁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성공 전략, 제약·바이오 산업의 디지털 혁신 성공 전략,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3개 세션이 펼쳐진다.

2일차에는 글로벌 제약사(존슨앤드 존슨, 노바티스, MSD, BMS)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존슨앤드 존슨은 '한국의 의료혁신 및 생태계 구

축', 노바티스는 '글로벌 이노베이션과 헬스엑스첼런지', MSD는 '파트너십: 혁신의 미래', BMS는 '자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 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 11곳이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와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일대일 온라인 컨설팅도 준비됐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위드코로나 시대,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의 발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서울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20년 만에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서울시, 매년 20여만건 우편 발송

서울시는 20년 만에 체납고지서 발송 방식을 종이 우편에서 모바일로 바꿨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 38징수과는 고액체납자 약 2만5000명을 관리하면서 매년 체납고지서 20여만건을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시는 “이전에는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서 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었다”고 업무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체납 안내 문자는 체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문자 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체납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체납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발송 방식 변경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납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게 돼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는 종이 우편물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감소, 종이 문서 제작·우편발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원근로자 노후 휴게공간 리모델링

서울시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5개 공원의 근로자 휴게공간을 리모델링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근로자 1인당 휴게면적을 평균 2.2㎡에서 3.4㎡로 확대했다. 후미진 지하에 있던 휴게실은 햇살이 들어오는 지상 시설로 올렸고, 창고와 휴게실이 구분 없이 사용됐던 공간은 용도별로 시설을 분리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가림막을 뒀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공간도 마련했다. 이번에 시설 개선이 이뤄진 5개 공원은 ▲천호공원 ▲울현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길동생태공원이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가장 큰 휴식처가 되고 있는 공원을 보다 쾌적하



보라매공원 근로자 휴게공간 개선 후 모습. /서울시

고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해 모두가 행복한 공원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휴게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며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실시

서울시는 이달 5일 종로구 소재 서울대부설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총 40개교, 약 2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도 불린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은 생활 속 다양한 장애를 직접 체험하면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1 | 해질 / 18:10

10월 5일 (화) / 음력 : 8월 29일

수도권 날씨 / 22 ~ 25 °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22, 동두천 20/23, 가평 20/23, 파주 21/26, 서울 22/25, 양평 20/25, 인천 22/24, 수원 22/25, 용인 22/25, 평택 20/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총리 기시다 내각 출범...극우 대거 포진 / ▲형다, 홍콩증시서 거래 정지...계열사 지분 매각설 / 사진 뉴스스

▲중국, 대만에 무력시위...미국 “압박 중단 촉구” / ▲리 코로나 하루 사망자 890명... 5일째 신기록 경신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분노 아닌 변화 위해 폭로” / ▲캘리포니아 원유 유출 송유관 폐쇄, 기름 제거 / 사진 뉴스스